

정희성씨

창작과비평사/B6변형/84면/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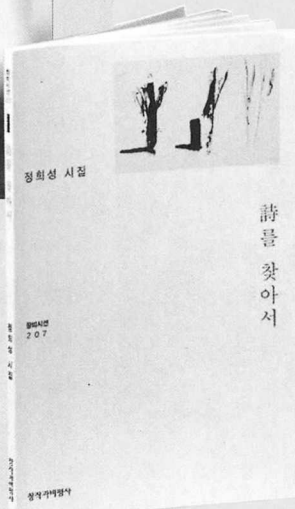
시인 정희성씨(57)가 10년 만에 네 번째 시집 《시를 찾아서》(창작과비평사)를 펴냈다. 문단 경력 30년에 시집 4권이던 다작은 아닌 편이다. 이번 시집을 보면 달랑 43편에 60쪽 분량이다. 시인이 얼마나 말을 아끼는지 짐작케 한다. 시집의 훌륭한 품은 1930년대를 떠올리게 한다. 그 시절 시인들은 일년에 한두편 시를 발표하고, 스물댓편 모아 책으로 만들어도 행복해했다. 대신 여백으로 시와 시를 널찍이 떼어냈다. 한편 읊조리며 그 궁터에서 잘 쉬었다 가란 배려였을까?

담채화같이 절제된 내면의 풍경

정씨의 이번 시집은 오랜만에 그런 편안함을 맛보게 한다. 《저문 강에 샅을 씻고》《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이상 창작과비평사)의 군청색 민중 정서가 사라지고 대신 담채화같이 절제된 내면이 들어섰다.

“일년에 서너편 씩니다. 못쓰는 해도 있구요. 올 초 출판사에서 시집을 내자고 댄달했는데 양이 모자라 못내나 했죠. 그런데 전화를 끊고 몇 달간 일곱편이 왕창 써집니다. 시집을 내고 싶긴 했나 봐요.”

일곱편을 ‘왕창’이라 표현하는 시인은 지독한 ‘언어세공사’다. “내 마음 / 한켜 한켜 / 쌓아올린 / 타지마할”《타지마할》처럼 한줄 한줄 보태 한편의 시가 탄생한다. 메모지가 흐물흐물해질 정도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시 풀을 갖



시를 찾아서

추면 안경알을 갈 듯 언어를 세공한다. 시인은 타고난 관객이기도 하다. 운율이 빗나가는 것을 눈뜨고 못 본다. 암송에 낭송을 거듭해 어색한 구석이 덜해지면 주변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소감을 듣는 버릇도 있다. “무릎 아픈 어머니께 / 사다 드린 지팡이 // 자식이 사준 지팡이 짚으면 / 자식 앞세운다고 / 신발장 한켠에 놓아둔 채 / 절머가신 어머니(《어머니의 지팡이》)에서 보듯 향가인지 시조인지 모를 묘한 리듬감이 시의 육체를 이루고 있다. 이는 그가 대학에서 고전문학을 전공하고 아이들에게 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서 더하다.

“시와 말과 ‘그대’ 같은 시어들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시와 그대를 일체화하기 위한 말의 노력이라 할까요? 이것이 붙기도 하고 때론 떨어지기도 하죠. 가끔 사랑이란 주제가 나오는 것도 시와 말을 싸고 맴도는 복잡한 감정이 표현된 거예요.”

시의 말을 찾아 나선 기록

“한줄기에 나서도 / 잎이 꽃을 만나지 못하고 / 꽃이 잎을 만나지 못한다는 상사화”(《시를 찾아서》)는 말에 굶주려 떠도는 시인의 외줄기 인생을 보여준다. “건너편 승강장의 그대와 눈이 마주친 순간 / 긴 터널을 뚫고 온 지하철허”(《섬광》)이 그 모습을 가려버리는 안타까운 연애상황도 연출된다.

세상에 대한 실망과 분노도 격을 갖췄다. “신

청빈과 절제의 미덕 갖춘 ‘언어세공사’

《시를 찾아서》 펴낸 정희성씨

《시를 찾아서》는 시에 대한 사랑과 번민의 기록이다. 시를 다치게 하는 말과 생각을 버릴 수 있는 데까지 버리고 나서야 만들어지는 시. 글보다 말이 앞서고 그 말도 뻑뻑하고 시끄럽기 이를 데 없는 시대에, 시인의 응색한 ‘말부림’은 읽는 이의 귀에 오히려 신선하게 감겨든다.

문을 보니 전아무개라는 사람은 /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켜 진압했을 뿐이라 하고... / 입이 쫓겨서 허품을 한바탕 하고 / 나는 신문을 접어 두고 차라리 산성일기를 읽었다”(《여름날의 독서》)는 구절을 곱씹어보면 시인이 느꼈을 분노의 정도와 그것을 삭이는 마음의 아량을 ‘하품’

이란 페이스소로 집약시키는 반전에 놀라게 된다. “버스가 오지 않는다 / 오지 않아도 기다린다 / 아아, 버스가 나를 기다리지 않으므로 / 나는 기다리리 / 버스는 오지 않으리 / 오지 않으므로 기다리리”(《오지 않는 버스》)는 이상사회가 결코 도래하지 않으리라는 허망함을 말하지만, 그래도 ‘오기’가 생겨 기다리게 되는, 기다리고야 마는, 허무를 이겨낼 의지의 시적 변용이다.

시인의 시는 교훈적이다. 그것은 시가 독자를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다. 역시 30년을 국어교사로 살아온 그의 삶이 알게 모르게 섞여 있다는 말이다. 선생으로서의 삶은 가끔 답답했다. “선생님 아닌 것도 좀 하고 싶어, 남 눈치 봐가며 슬그머니 발을 떼면 어김없이 누군가 뒤통수에 대고 ‘선생님’ 하고 돌려세우고 만다”는 데서 이를 엿볼 수 있다. “나비 한 마리 어깨 위에 앉았다 날아간다 / 내 영혼이 너무 무거웠는지 모른다”(《인도의 기억》) 같은 구절은 “풍성하지 못하고 응색한” 삶의 흔적에 대한 회한의 한 표현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시가 교훈적임에도 결코 따분하지 않게 읽히는 까닭은, 청빈한 삶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 강성민 기자